

[토론 요지]

세미나 토론 요지

양 금 승 |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

□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평가

- ‘08년에 발표된 수도권규제 완화는 종전에 비해 획기적이지만, 기존 공장증설과 첨단업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규제의 기존 틀은 고수
- 수도권 공장 증설효과는 제한적이며, 자연보전권역은 후속조치 미흡
- ☞ ‘09년 1월,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56개 기업(251개 수도권 소재 응답업체의 22.3%)들이 총 3조 9,386억원의 공장설립투자를 집행 또는 실행계획

□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된다고
하나, 완화내용에 대한 이해가 낮고, 정치적인 요인

- 완화조치로 모든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, 이미 공장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 공장 증설과 이전규제 완화. 따라서 기존 공장의 증설규제를 지속해도 해당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음(소위 ‘규제의 풍선효과 없음)
- ☞ 전경련 조사결과 투자계획이 있는 29개사중 수도권 규제지속시 2개사만이 지방이전을 검토함(2조 9,470억원중 635억원; 2.2% 수준)
- 규제의 풍선효과는 국가간 자본이동의 장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들은 세계 어디든 기업환경이 좋은 곳에 투자함
 - 오히려 개방화된 경제환경에서 수도권에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은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보다는 중국이나 해외로 빠져나가게 됨
 - 외투기업들도 수도권규제로 공장증설이 막히면 아시아지역 생산교두보를 한국에서 중국 등 경쟁국으로 이전하고 있음

☞ 독일계 K사는 아시아 거점으로 중국투자('04~'05)에 주력하여 중국사업장은 연간 54억원 매출액 기록. 스웨덴계 A사는 '04,'07년 중국사업장에 4.24억불의 투자와 904명의 고용 창출

-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지방의 기존 공장을 철수하여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 - 이미 지방에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기존 공장부지 또는 인접부지에 증설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며,
 - 또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도 지방의 기존 공장을 철수하여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
 -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신설이 허용되어도 입지가능 부지가 산재되어 적정입지의 물색이 어렵고, 수도권 산업단지의 땅값은 평당 500만원 이상으로 지방의 20~40만원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비싸며, 높은 인건비와 교통·환경의 민원증가 등 비용측면에서 지방이 수도권보다 유리

□ 수도권-지방간 대결구도보다는 국내기업 투자 및 외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여건의 개선이 필요

-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 입지관련 투자여건(용지가격, 기반시설 지원, 지원해택, 행정서비스)이 일본, 중국,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열위로 평가
 - 응답업체의 39.2%(40개사)가 '나쁜 편이다'라고 응답하여 '좋은 편이다'라는 응답비율(9.8%, 10개사)의 4배

□ 국내기업의 투자 촉진 및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발전방안의 추진과 병행하여

수도권규제의 정비방안 검토 필요

- 일부에서는 '선지방발전-후 수도권 규제완화'를 주장하고 있으나, 경쟁체제에서는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됨
- 수도권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보다는 인프라 확충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개발 추진
- 특히,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는 물론,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에 대비하여 지방의 입지환경 등 투자여건 향상

- 예컨대, 非 수도권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기업에 외국수준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 입지여건 개선
-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, 지역에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’ 조성이 급선무이며,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연결 가능
-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 별로 선의의 자율경쟁체제를 구축이 중요
- 특히, 글로벌 경제환경에 맞춰 주변 경쟁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행정시스템 구축이 기업유치 성공의 관건

□ 단기적으로는 수도권규제에 묶여 기업이 공장설립의 투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

공장의 증설/첨단업종의 신증설이 필요

- 수도권 공장 신·증설 투자애로가 많은 자연보전권역에 기존 공장 증설이 허용되도록 규제완화 후속법령(수생태계법, 산집법 및 수정법령 등)의 개정 필요
-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에서 도시형 업종 또는 첨단업종 공장 신설